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꿈은 제가 정할게요

곽○유 / 황○초등학교

TO. 부모님에게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 ○유예요.

이제 제가 6학년이 되면서 엄마 아빠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제가 뭐가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아빠는 저에게 선생님을 하라고 하시고 엄마는 의사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가 제 꿈을 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꿈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부모가 결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일 매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꿈이 100%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 한 번 믿어 주세요.

꿈에 대하여 저 엄마께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엄마는 왜 간호사를 하시다가 탁구 코치로 바꾸신 건가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그 동안 꿈과 다르게 살다가도 언젠가는 제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엄마께서 저를 운동선수를 시키려고 하시지 않는 것인지 가끔씩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 때문에 섭섭하기도 해요. 제 취미가 운동인 것도 아시면서 왜 운동선수를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물론 엄마는 직접 탁구 코치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를 말리시는 거겠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운동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만약 다른 꿈을 찾기 전까지 엄마 저를 믿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다른 꿈을 찾는다면 그때는 저 스스로 운동량을 조절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몸과 건강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엄마가 보시는 것처럼 장난같이 운동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현재 제 꿈인 탁구 선수를 위해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는 제가 아직은 어리고 장난만 치는 아이로 보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절 한 번만 믿어 주세요. 그리고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은 곽○유 올림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넌 응원해

이○미

유치원에서 친구가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줄넘기만 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던 아이는 어느새 줄넘기 달인이 되었고, 공룡을 좋아하는 동생에게 질세라 함께 치열하게 공룡 다큐멘터리와 공룡책을 보던 아이는 이제 동생을 뛰어넘는 공룡박사가 되었지. 친구들이 그려준 예쁜 그림편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 가방 내려놓을 새도 없이 연습장을 몇 장씩 써가며 그림을 따라 그렸더랬지. 친구의 편지에 대한 반가움을 느낄 여유는 없었지만 결국은 마음에 찰 만큼의 그림을 그려 냈을 때 그 아이의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은 잊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로 너야.

이런 것들이 우리 ○이에게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아는데도 그런 모습이 싫었던 적이 있었어. 엄마가 살아보니깐 세상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고, 엄마는 그 경쟁에 떠밀려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좋아하는 아이인지, 어떨 때에 난 행복한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았거든. 덕분에 어린이라 불릴만한 시절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같아. 그냥 아기에서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이렇게 성숙해질 새도 없이 어른이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다. 엄마는 ○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단다. 세상에는 노래를 잘하는 은행원도 있는 법이고, 요리를 잘 하는 피아니스트도 있으며, 글을 잘 쓰는 운동선수도 있는 법이니깐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건 그건 세상에 하나뿐인 ○이란단다. 이제는 항상 ○이를 응원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단다. 엄마가 너의 조력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건 단 두 가지란다.

하나, 세상을 궁금해 하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하길 바란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처럼 항상 궁금해 하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하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가 좋아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놓아버리지 말거라. 모든 창의성은 전문성에서 시작 되는 거란다. 자기가 많이 알고 애정이 있는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란다.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 즐거운 마음으로 파고들여라. ○이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거기에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모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깊고 진중한 사람은 반드시 독서를 많이 한단다. 공대를 가서 연구원이 되어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도, 혹은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인문학에서 비롯된 지성은 널 어느 누구와도 다른 너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면 너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소중한 경험들이 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니 후회하더라도 그로인해 흔들리는 자신의 불안함까지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너의 영원한 친구이고 싶구나.